

국립민족학박물관의 전시·교육·운영·지역연계프로그램에 관한 조사 연구

A Study on the Exhibition·Education·Operation·Regional Linkage Program of the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Author 박진아 Park, Jin-Ah / 정희원,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
정아영 Jung, A-Young / 정희원, 백석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전공 조교수, 공학박사
공순구 Kong, Soon-Ku / 정희원,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부교수, 공학박사*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exhibition, education, operation, and regional linkage program around a case of the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in Netherlands, Germany, Mexico, England, and Japan to suggest necessary directions when constructing the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of Korea. Interview by visiting the site and email interview were conducted for the investigation and sugges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are as follows. 1) It is necessary for the exhibition program to suggest a comparison exhibition by continent, and to be specific, occupation, style of living, representational culture, religion and view of the world, relation of power, and development culture are essential for the culture contents. 2) The education program needs to be constructed based on the age and level, and specific education program was suggested in this study. 3) Managing library, restaurant, cafe, and museum shop is essential for the operation program, additional service operation was suggested to cover additional financial areas, and professional research workers and professor manpower are necessary. 4) The regional linkage program needs to be composed by considering special qualities of the country and region, and needs to satisfy the expected effect of the local community and local residents.

Keywords 국립민족학박물관, 전시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지역연계프로그램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Exhibition Program, Educational Program, Operation Program, Regional Linkage Program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다문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으며 분야마다 여러 가지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의 요구는 박물관도 예외 일 수 없으며 단일 민족을 강조해온 우리 민족에게 또한 이(異) 문화에 대한 개방과 포용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박물관에 있어서도 우리 문화만을 바라보는 차원에서 한 층 더 나아가 다양한 시각으로 이(異)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며 이러한 이(異)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 이는 데 있어서 박물관은 가장 좋은 교육의 장이다. 하지만 국내의 여건상 다문화적 경험을 풍부하게 제공해

주고 있는 박물관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네덜란드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Leiden의 관장 Steven Engelsman은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과 같이 문화다양성을 기리는 것이다.”라고 개인적인 관점을 밝힌 바 있으며,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에 의하면 “생물다양성이 자연에 필요한 것과 같이 문화다양성은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 OECD 국가들 중에서 인류학 또는 민족학 박물관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다문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역시 세계 여러 민족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 민족학박물관 건립이 필요한 현실에 있다.²⁾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족

1) 국립민속박물관, 세계민족학박물관장 초청 국제심포지엄, 2010, pp.35-49
2)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민족학박물관 전시콘텐츠 연구에 언급된 바에 따르면 OECD국가에 해당되는 30개국 중 24개국이 인류학·민족학박물관을 보유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족학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ksk@hongik.ac.kr

학 전시를 하고 있는 해외 5개국의 국립민족학박물관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박물관의 전시, 교육, 운영,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국립민족학박물관의 전시, 교육, 운영, 지역연계프로그램의 현황을 알아보고 이후 대한민국의 국립민족학박물관이 건립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본 연구의 궁극적인 의의로 두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민족학 및 민족학박물관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해외 5개국의 국립민족학박물관의 사례조사를 진행하였다. 사례조사는 해외 5개국을 직접 방문하는 현지방문조사를 바탕으로 현장 인터뷰³⁾ 및 이메일 인터뷰, 관련 문헌, 웹 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민족학 연구에 있어서 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럽, 미국, 일본 등의 국가 가운데 GDP 20위 이내의 네덜란드, 독일, 멕시코, 영국, 일본의 국립민족학박물관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5개국의 국립민족학박물관을 대상으로 민족학박물관의 전시, 교육, 운영,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조사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 현재 국립민족학박물관이 대규모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로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며 멕시코의 경우는 과거 인류학·민족학박물관의 근본적인 목적을 반영하여 설립된 대표적인 박물관이기 때문에 사례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현지 방문조사는 일본을 시작으로 2012년 9월 29일부터 2013년 7월 22일까지 진행되었다.

<표 1> 조사대상 국립민족학박물관 개요

박물관명	네덜란드 국립민족학 박물관 (Rijksmuseum Volkenkunde, NL)	독일 국립민족학 박물관 (Museum für Völkerkunde Hamburg)	멕시코 국립인류학 박물관 (Museo Nacional de Antropología)	영국 핏리버스 박물관 (Pitt Rivers Museum, University of Oxford)	일본 국립민족학 박물관 (國立民族學博物館)
개관	1837년	1879년	1964년	1887년	1977년
위치	Leiden, Netherlands	Hamburg, Germany	Mexico, D.F.	Oxford, UK	Osaka, Japan
면적	13,711㎡	12,000㎡	79,700㎡	3,619㎡	51,225㎡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2층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4층
사진					

2. 이론적 고찰

박물관 전시콘텐츠 연구, 2010

- 3) 현장 인터뷰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이메일을 이용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네덜란드의 경우 전시·교육부서 장 (Anne Marie Woerlee), 독일은 박물관장(Wulf Köpke), 멕시코는 INAH의 법률부서 장(Mr. Miguel Jorge Juarez), 영국은 박물관장 (Michael O'Hanlon)과 큐레이터(Jeremy Coote), 일본은 홍보기획 실 홍보과 직원이 답하여 주었다.

2.1. 민족학의 개념

민족학(ethnology)의 어원은 인류학(Anthropology)에서부터 시작되며, 인류학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인간의 과학이라 할 수 있다.⁴⁾ 인류학이란 말은 원래 그리스어에서 인간을 뜻하는 anthropos와 논 의 또는 학문을 뜻하는 logos를 합한 말이다. 18세기와 19세기 초의 학자들은 문화적 차이와 보편적 인간성의 특징에 대한 연구를 가리키기 위해 ‘민족학’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미국을 제외한 영어권 국가와 영국에서는 사회인류학이 보다 보편적인 명칭이다. 유럽 대륙에서 인류학이란 용어는 아직도 제질인류학을 의미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인류학은 민족학의 동의어로 점차 입지를 굳히는 추세다. 미국에서는 민족학이란 용어가 문화인류학과 공존하고 있다.⁵⁾ 따라서 국가나 지역에 따라 사정은 다르지만 일본에서 인류학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자연인류학과 문화인류학 모두를 의미한다. 한편 유럽대륙에서는 민족학이라는 명칭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은 유럽의 학문적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명칭이 보다 많이 사용되었다. 오사카에 있는 국립민족학박물관의 이름은 이러한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⁶⁾ 유럽, 미국 그리고 일본의 인류학·민족학박물관들의 역사를 다시 돌아봤을 때 그들 박물관의 사명과 업무가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와 20세기 전반까지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를 넓히기 위해 경쟁했으며 인류학·민족학박물관들은 이에 대한 도구로서 기능하였다. 즉, 이 박물관들은 여러 식민지문화에 관한 전시를 통해 지배국가의 힘을 강조하고 사람들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에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인류학·민족학박물관들은 제국주의 국가들과 그 식민지들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민족학박물관들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문화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는 장소들로 바뀌었다. 인류학·민족학박물관들은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대화와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진다.⁷⁾ 민족학은 문화들을 비교적 분석적인 시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며 주로 종교적인 믿음이나, 언어, 친족, 결혼, 농업 기술, 식단, 남녀 관계, 권력 등에 관한 주제를 연구한다.⁸⁾

2.2. 민족학박물관의 필요성

OECD에 가입한 30개국 가운데 인류학, 민족학박물관

- 4) 전경수, 인류학과의 만남,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p.13
 5) 앨런 바너드 지움, 김우영 옮김, 인류학의 역사와 이론, 한길사, 2003, pp.20-21 요약.
 6) 綾部恒雄, 桑山敬己 외 지음, 황달기 옮김, 알기 쉬운 문화인류학,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2, p.33
 7) 佐佐木史郎, 세계민족학박물관장 초청 국제심포지엄, 국립민속박물관, 2010, pp.128-131
 8) Cambridge Dictionary Philosophy

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24개국으로 이 외 국립민족학 박물관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6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이 해당된다.<표 2>참조

한국의 총인구 가운데 115만 명이 외국인 혹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해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내 다문화 가정의 학생은 7만 명으로 경기도에서는 도내 다문화가족 자녀가 2006년 이후 6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로 인해 세계화의 물결에 따라 다문화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다양성을 인정하여 왜곡된 선입견이 없는 글로벌 문화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해와 소통의 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립민족학박물관은 다문화의 이해를 도우며 편견을 좁혀 나갈 수 있고 문화적 소통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 장소로서 해외 주요국가의 경우 다문화 사회와 세계화 현상 등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대처 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⁹⁾

<표 2> OECD 국가의 민족학·인류학박물관 보유 현황

총 30개국	민족학박물관 보유	
	24개국	미 보유 6개국
국가명	일본, 터키, 캐나다, 멕시코, 미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대한민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뉴질랜드

본 연구에서 민족학박물관은 세계화라는 국가적인 미래 과제로서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대화와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에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한국문화와 더불어 타문화의 콘텐츠를 함께 반영하는 전시로의 확대가 요구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민족학박물관은 다양한 민족문화를 이해하고 타문화를 수평적인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¹⁰⁾

2.3. 민족학박물관의 프로그램

(1) 전시프로그램

민족학박물관의 전시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1830년과 1840년 프랑스 지리학자 Edmé François Jomard와 프러시안 의사 Von Siebold에 의해 두 개의 분류 방법과 전시방법이 만들어졌다. Jomard는 전시품의 목적(쓰임새)에 따라 전시, Von Siebold는 전시품의 원

산지에 따라 분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¹⁾ 민족학은 문화인류학과 연구대상이 같음으로써 ‘좁은 의미의 문화인류학’으로 여겨지며 문화인류학의 연구 분야는 다음과 같다. 생업은 즉 생계양식이며 수렵, 목축, 농경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생활양식은 의, 식, 주를 포함하고 권력관계는 식민지, 전쟁, 문화와 경제는 시장, 화폐, 소비, 교환 등을 포함한다. 성과 혼인은 인간의 생식, 혼인, 출산, 개발과 문화는 인간발달, 기술, 무역, 학문을 포함하며 의료와 문화는 질환, 질병, 치료, 신체에 관련되는 콘텐츠이다. 사회집단과 사회계층은 인간관계 및 성취 지위, 귀속지위를 다루며 표현문화는 음악, 예술, 여가, 놀이, 공연을 포함하고 있다. 인류의 이동과 공생은 이주민이나 이민자, 이동방식, 이동원인, 종교와 세계관은 상례와 영혼관, 축제, 신앙, 종교에 대해 다루고 가족과 친족은 가족 및 친족 관계, 언어는 의사전달, 문자, 언어변동에 관련된 콘텐츠이며 인간의 일생은 사람의 일생, 통과례, 금기, 민족과 종족성은 민족, 국가, 종족 정체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¹²⁾ 본 연구에서는 민족학이 문화인류학과 연구대상이 같음을 바탕으로 상기에서 언급한 생업, 생활양식, 권력관계, 문화와 경제, 성과 혼인, 개발과 문화, 의료와 문화, 사회집단과 사회계층, 표현문화, 인류의 이동과 공생, 종교와 세계관, 가족과 친족, 정치체제와 법체계, 언어, 인간의 일생, 민족과 종족성의 총 16개 카테고리 전시코텐츠의 조사 범위를 한정하였다.

(2) 교육프로그램

박물관 교육이란 박물관에서 일어나는 교육으로서 전시와 전시품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통해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고,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스스로의 정체성을 깨닫는 과정이며 다양한 관점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고 생각하는 작업이다.¹³⁾ 박물관은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비영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가, 학습을 통해 무엇이 소개되고 지도될 것인가,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¹⁴⁾ 민족학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가족, 학교단체 등과 같이 대상별로 구분된다. 민족학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은 주로 전시와 연관된 것이 많다. 예를 들어 도슨트, 가이드 투어가 있으며 각 전시실의 주제에 맞게 전시를 설명하거나 전시 관련 활동지를 통해 학습하고 전시와 연계한 공연 또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외에도 각 박물관의 성격에 맞게 강의 및 세미나

11) Anthony Alan Shelton, Museum and Anthropologies: Practices and Narratives, WILEY-BLACKWELL, 2006, p.93
 12) Barbara Miller, Cultural Anthropology in a Globalizing World, Pearson Education, 2010. 알기 쉬운 문화인류학, 계명대학교, 2012
 13) 백령, 멀티미디어시대의 박물관 교육, 애경, 2005, p.28
 14) 백령, 멀티미디어시대의 박물관 교육, 애경, 2005, p.115

를 제공한다. 교육프로그램은 목표를 명확히 하고 커리큘럼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관람객의 만족도는 물론 목표달성도 및 파급효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족학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한 연령과 계층에게 제공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 각각의 참여대상, 참여정원, 소요시간을 조사기준으로 설정하였다.

(3) 운영프로그램

박물관의 운영프로그램은 전시와 소장품 수집, 연구, 마케팅, 교육, 조직 및 관리 운영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프로그램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와 통일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운영프로그램의 차별화된 개발은 박물관 활성화에 중요한 토대가 되며 박물관에서 일하게 될 인력을 구성하는데 기초 자료가 된다.¹⁵⁾ 민족학박물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타 박물관 및 기관과 연계하거나 장소대여 및 숙박, 정기간행물 발행, 인턴 및 자원봉사자 채용, 행사개최 등의 운영과 레스토랑, 박물관, 커피숍의 운영을 통해 박물관을 활성화 시키고 재정적인 부분의 충당을 위해 멤버십, 파트너 및 회원제 운영, 홍보 또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운영프로그램은 국립민족학박물관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관람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영 및 관리측면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공간과 서비스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4) 지역연계프로그램

지역연계프로그램은 박물관이 지역사회 또는 지역민들을 위하여 교육, 장소대여, 세미나 및 행사 등을 제공하고 해당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를 통해 지역민들은 문화욕구 충족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받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로 이어지게 된다.¹⁶⁾ 또한 관람객의 수요에 부합해야 하며 담당인력의 전문성 및 연계된 집단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대부분 지역기관이나 단체, 학회, 학교와 연계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소장유물과 전시를 활용하여 홍보 및 교육을 하고 각 박물관의 성격과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지역연계프로그램은 지역 특성이 반영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3. 국립민족학박물관의 전시·교육·운영·지역연계프로그램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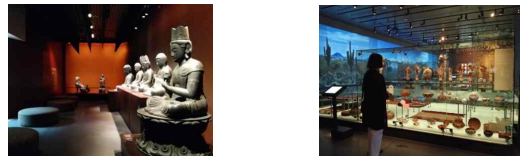
3.1. 네덜란드 국립민족학박물관

‘Siebold’의 5000개의 전시품들로 이뤄진 일본 컬렉션이 핵심적인 기초가 된 본 박물관은 아프리카, 중국, 인

도네시아, 일본, 한국, 중·남부 아메리카, 북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에 관한 다양한 세계문화의 역사적인 발달을 보여주는 전시품을 수집하려 노력하고 있다. 대다수 전시품의 기원은 일본이 나가사키 항구만을 공식적으로 개방한 시절에 모은 것들이며 무역대상국과의 관계 및 비 서양세계에 대해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1) 전시프로그램

네덜란드 국립민족학박물관의 전시프로그램은 대륙별로 나뉘어 전시가 구성되어 있다. 전시 컨셉은 대륙을 하나의 리본으로 엮어(A ribbon around the world) 가능한 많은 관객이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네덜란드인의 비 서양세계에 대한 인식과 안목을 넓히고자 하는 것이다. 네덜란드 국립민족학박물관은 주로 생업, 생활양식, 권력관계, 개발과 문화, 표현문화, 종교와 세계관에 관련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부처홀’전시실을 통해 종교와 세계관 콘텐츠를 특화시키고 있으며 ‘일본’, ‘한국’, ‘중국’ 전시실을 통해 언어에 관한 콘텐츠를 특화하였다.<표 3>참조



<그림 1> 네덜란드 국립민족학박물관 전시프로그램

(2) 교육프로그램

네덜란드 국립민족학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은 초등과정, 중·고등과정, 일반인단체, 가족단체로 구분된다. 직접 몸으로 체험하며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대다수이며 댄스 및 악기연주가 주를 이룬다. 같은 주제의 활동이더라도 관람객의 수준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표 4>참조

(3) 운영프로그램

네덜란드 국립민족학박물관의 운영프로그램은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공간으로 레스토랑, 카페, 도서관, 뮤지엄 샵을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로 운영하는 시설에 관람객의 숙박 및 행사를 위한 서비스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객실 이용과 더불어 회의 및 강연회 등의 서비스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다.<표 5>참조

(4) 지역연계프로그램

네덜란드 국립민족학박물관의 지역연계프로그램은 청소년 학교프로그램 및 버스 할인, 수장 공간을 타 도시에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타 박물관이나 기관에 박물관의 수장품을 대여하여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표 6>참조

15) 김래영, 한국이민사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전시 및 운영프로그램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2008, p.17

16) 이민아, 지역사회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활성화, 경희대 석사논문, 2012, p.17

<표 3> 조사대상 국립민속학박물관의 전시프로그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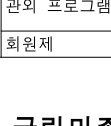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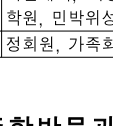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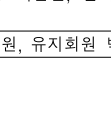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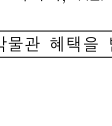
프로그램 구성	전시 섹션	생업	생활양식	권력관계	문화와 경제	상과 혼인	개발과 문화	의료와 문화	사회진단과 사회계층	인류의 이애과인애	종교와 세계관	가족과 친족	정치체제와 법체제	언어	인간의 일상	민족과 종족성
네덜란드	1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중부 아프리카/남 아프리카	○	○												
	2 아시아	티벳/몽골/이슬람	○	○												
	3 부처 홀	다섯 개의 정동 부처상	○	○												
	4 인도네시아	권위/가족 관계/고대 전통	○	○												
	5 중남부 아메리카	마야인/아즈텍인/잉카/아마존 사람들	○	○												
	6 북아메리카와 극지방들	북아메리카 평지의 인디언들부터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이누이트 지역	○	○												
	7 일본	일본문화	○	○												
	8 한국	사머니즘(무속신앙)/언어	○	○												
	9 중국	불로장생을 위한 산/무속 신앙	○	○												
	10 오세아니아	바다/변천하는 의식/접촉/몸 장식/조상	○	○												
일본	1 고대이집트	사후세계 및 죽음	○	○												
	2 아프리카	사하라 남부 국가 및 도시 사람들의 삶/사후세계/의식	○	○												
	3 잉카	의복, 통치자의 초상/의식에 쓰였던 용기/페루인들의 천 짜는 기술	○	○												
	4 북미 인디언	일지형의 공동 주택/북서부 해안/인디언 문화/현대 인디언들의 생활	○	○												
	5 유럽	종교/서민들의 삶/예술/유럽 문화	○	○												
	6 오세아니아	남태평양의 가면/춤/때 입는 의상/조상	○	○												
	7 발리	발리인들의 미술, 연극, 문학, 건축, 의식	○	○												
	8 마야	마야 현대기/20세기 초 최근 마야	○	○												
	9 마오리족	'Rauru' 집	○	○												
멕시코	1 멕시코 원주민 문화	-														
	2 인류학 소개	땅, 날씨, 영장류/오스트랄로피테쿠스 종/호모 종의 출현, 호모사피엔스의 출현/창조적인 혁명	○	○												
	3 아메리카 정착화	아메리카 대륙의 정착과 문산/멕시코 선사시대/첫 멕시코 정착 인류의 농업 발전	○	○												
	4 전기고전주의의 중앙고원	초기 고전주의 초기, 중기/초기 고전주의 후기, 중기	○	○												
	5 떼오띠우아칸	전반적인 지리적 설명 및 역사 설명/세라믹 기술/행사적, 종교적 성격/경제, 사회적 성격/일상 생활 및 가정 생활/건축	○	○												
	6 뜰때까와 그 시대	중기 고전주의/후기 고전주의 초기와 후기	○	○												
	7 메히카	-	○	○												
	8 와히카 문화	정치, 사회적 성격, 경제적 성격, 행사 및 종교적 성격, 일상 생활	○	○												
	9 걸프해안의문화	LaOlmeca(1800-100 a.C.)/La del Centro de Veracruz(1800 a.C.-1519 d.C.)/La Huasteca(1800 a.C.-1519 d.C.)	○	○												
	10 마야	정치적, 사회적 성격/경제적 성격/행사 및 종교적 성격/수공예/예술	○	○												
	11 사족 문화	200 a.C.-400d.C./600 d.C.-/900-1521	○	○												
	12 북쪽 문화	-	○	○												
	13 원주민	-	○	○												
	14 그란 나야르		○	○												
	15 뿌레에체리오		○	○												
	16 오토빠메(Otopame)		○	○												
	17 뿌에블라 산맥	지역적, 역사적 설명/일상 생활상 전시/수공예품 전시/민족적 전통 노래, 악기, 춤, 복장 전시(특별히 나누어진 섹션은 없고, 전반적으로 민족적 특성에 맞춰 일상생활 및 주거 형태, 경제적 생활양식과 도구들, 각종 전통 수 공예품 전시, 민족 전통 노래, 악기, 춤, 복장 등을 전시하며 미니어처나 모형 등이 대부분을 이룸)	○	○												
	18 와히카: 남쪽 인디오 문화		○	○												
	19 걸프 해안:		○	○												
	20 우아스떼까와또뜨나까뻬		○	○												
	21 마야 문화		○	○												
	22 북서부지방:산맥,사막,계곡		○	○												
23 니우아스		○	○													
태국	1 G층	최근 들어온 전시품들/연기, 발화제/미술, 조각품/옷, 직류/움직임, 길 찾는 도구/장례식, 죽음/글쓰는 것, 말하는 것/도구와 기술/특별 전시 기록보관소	○	○												
	2 1층	아기요람/베넨 왕궁 미술/바디아트, 장식품, 보석/캡틴록 컬렉션/행사, 직위/저장도구/문, 축량도구/깃털, 구슬 장식품/주방 도구, 저장 도구/머리 장식품, 스톨/스케이트, 신발/키와 자물쇠/약과 수술도구/그림, 장식/꼭두각시, 장난감, 게임/제품 재활용/일시적인 디스플레이	○	○												
	3 2층	활/무기/도끼, 미늘창, 검/다트, 입으로 부는 화살총/부메랑/무기(채)/발화도구, 그 외 관련된 도구들/어부, 사냥, 댕, 사냥/손, 팔에 장착하는 무기/naga'족에 관련된 전시(북동부 인도)/방패/창, 작살/검, 칼, 칼날/일시 전시	○	○												
태완	1 오세아니아	이동과 확산/바다에서의 생활, 섬에서의 생활/외부 세계와의 접촉/원주민의 정체성 표현	○	○												
	2 아메리카	만나다/식사/입는다/기도/만드는	○	○												
	3 유럽	생업과 일년/종교 · 신앙/산업화와 함께/변화하는 유럽	○	○												
	4 아프리카	역사/발굴/일, 쉬다/가장하는/기도/아프리카의 현재	○	○												
	5 서아시아	신앙/사막 생활/팔레스타인 디아스포라/일본인과 중동/소리 문화와 대중 문화	○	○												
	6 음악	Drums/Gongs/Oboes/Guitars	○	○												
	7 언어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언어의 다양성/세계의 문자	○	○												
	8 남아시아	도시, 시골/공예/생활과 과학/목축, 어촌/신들과 인간	○	○												
	9 동남아시아	벼농사 문화/바다의 생활/산의 생활/생활 공구/의복과 장신구/신앙의	○	○												
	10 동아시아(한반도)	세계/불교의 공간/와양 광장/도시의 풍경	○	○												
	11 동아시아(중국)	역사와 문화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예능 축제와 예능/산간지방의 생활/조원 생활, 고원 생활 도시 생활/테마 전시	○	○												
	12 중앙·북아시아	중앙아시아의 유목과 농경문화/몽골의 유목문화/북아시아의 수렵과 어로문화/사머니즘의 세계	○	○												
	13 동아시아(아이누)	아이누의 수렵 · 어로 · 농경/아이누의 곰 위령제/아이누 문화의 현재	○	○												
	14 동아시아(일본)	축제와 예능/일본의 전통가옥, 농기구와 운반구/수렵과 산의 생활, 선박과 어로도구/신발, 모자, 생활용품	○	○												

○:컨텐츠, ◎:특화 컨텐츠

<표 4> 조사대상 국립민족학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 구성	대상	정원	소요시간	관련이미지	
내 포 란	초등과정 (5~12세)	1~2학년	미니월드투어	5~6세	30명	90분	
		3~5학년	미니월드투어	7~9세	15명	45분	
			멕시코 댄스 워크숍 아프리카 댄스 워크숍				
		6~8학년	미니월드투어	10~12세	15명	45분	
	멕시코 댄스 워크숍						
	발리 댄스 워크숍						
	발리 gamelan 아프리카 댄스 워크숍						
	중·고등 과정	VMBO(직업과정4년), HAVO(일반중등과정 5년),VWO(대학준비 과정6년)	아프리카 음악	VMBO	15명	90분	
			가이드투어	VMBO, HAVO, VWO	15명	45분	
			멕시코 댄스 워크숍	VMBO, HAVO, VWO	15명	45분	
발리 댄스 워크숍			VMBO, HAVO, VWO	15명	45분		
발리 gamelan			VMBO, HAVO, VWO	15명	45분		
일반인 단체	워크숍	일반인	15명	40분			
	가이드 투어	일반인					
	살사 댄스	일반인					
	발리 댄스	일반인					
	아프리카 댄스	일반인					
	아프리카 djembe	일반인					
가족 단체	워크숍 가이드 투어	발리 gamelan	일반인	최대 10명	90분		
		퀘스트(워크시트)	유치원생				
		방학 프로그램	7~12세				
		와일드 버스	2~6세				
일반인 단체	생일 파티	파티, 식사	7~15세	최대 10명	90분		
		아프리카테마	7~15세				
		인도네시아테마	7~15세				
민 속	박물관 교육	리더십	어른/어린이	-	60분		
		박물관과의 대화	-	-	90분		
	가이드 투어	박물관 이야기	-	-	-	120분	
		프로젝트	-	-	-	180분	
	3~4세 아이들 프로그램	발리의 꿈, 인도의 판테온	8세 이상	-	-	-	
		미스터리, 티피빌리지에서의 밤	성인	-	-	-	
		3~4세 아이들 프로그램	3~4세	-	-	90분	
		생일파티	4~13세	10명	-	다양함	
		작업장	8세 이상	-	-	3시간	
		박물관의 밤	8~12세	-	-	-	
		판테온	6세 이상	-	-	60분	
		인도인들의 그림	7세 이상	-	-	60분	
		사모아 태평양의 진주	8세 이상	15명 이상	-	60분	
		함부르크 민족학박물관	11세 이상	-	-	60분	
		전 세계 음악	5~17세	-	-	60분	
		세계의 집	6~15세	-	-	60분	
		고대 이집트	11세 이상	-	-	60분	
		마오리족 Rauru집	8세 이상	20명 이상	-	60분	
	마오리 문신(타 모코)	13세 이상	최대 20명	-	60분		
	남태평양의 가면	12세 이상	-	-	60분		
북아메리카 인디언	11세 이상	-	-	60분			
마야	11세 이상	최대20명	-	60분			
잉카	17세 이상	-	-	60분			
박물관 교육 이벤트	학교 워크숍	학교워크숍(초등,중등)	학교 단체	-	45~60분		
	여름 워크숍	아침워크숍 저녁워크숍	6~16세 10세 이상	-	3시간 3시간		
	박물관 학습 이벤트	메소아메리카 박물관 디플로마 과정 토요일코스	-	-	-		
	가이드 투어	유아·초등·중등·특별 교육대상자 중·고급 및 고급 레벨 대상자 가족, 일반대중 및 외국인 여행객	25~40명 25~40명	-	45~60분 60~75분		
오디오기아 INAH 학습 이벤트	문화 산책	제한없음	-	-	-		
초·중·고 학 교 학 생 단 체	초등 과정	가이드 투어	처음방문	KS1(5~7세)	35명	60분	
			고대이집트,북미인디언,하이다인	KS1,2(5~9세)	35명	75분	
		Hans-on 워크숍	이누이트, 아즈텍, 아프리카	KS2(7~9세)	35명	75분	
			역사 탐정	5~6세	35명	135분	
			아프리카 음악	KS1(5~7세)	-	-	
	중등 과정	음악 워크숍	체험	KS1,2(5~9세)	35명	75분	
			꼭두각시와 이야기	KS1,2(5~9세)	35명	60분	
		Art그룹	가면	KS2(7~9세)	35명	60분	
			무엇일까	-	-	40분	
			극도의 환경	-	-	60분	
가족 프로그램	음악 워크숍	역사 탐정	-	-	90분		
		아프리카 음악	11~17세	22명	90분		
	인도네시아 자바 유형 음악	11~17세	18명	120분			
		13~17세	15명	120분			
		11~17세	-	-			
일반인 단체	가족 행사	중학생 단체	11~17세	25명	30분		
		가족행사	일반인	-	120분		
	데마행사 Pack	일반인	-	180분			
		일반인	-	-			
		일반인	-	-			
초·중·고 학 교 학 생 단 체	전문가 강연 유물 가이드	전문가 강연	성인	-	150분		
		유물 가이드	성인	-	-		
	커뮤니티 서비스	전문가 가이드	성인 단체	-	-		
		커뮤니티 서비스	성인	-	-		
		성인	-	-			
초·중·고 학 교 학 생 단 체	체험견학 MINpack	초등학교	초등학교단체	-	-		
		중·고등학교	-	-			
	일반인 단체	소풍, 교외학습 사전견학 및 지도	선생님	-	3시간		
		학교-박물관 파트너쉽	선생님	-	-		
		연수프로그램, 워크숍, 주말살롱, 연구공연, 세미나, 영화, 연구모임, 학술강연회	성인	-	-		
어린이 워크시트	퀴즈게임 소프트웨어	어린이~성인	-	-			
	어린이 브로셔	초등학생	-	-			
워크시트	어린이	-	-				

<표 5> 조사대상 국립민족학박물관의 운영프로그램 현황

구성		운영내용			
네덜란드	서비스 공간				
	서비스 프로그램 및 기타	룸 대여 객실대여 정기 간행물 채용	회의룸, 컨퍼런스, 강연회, 워크숍 장소대여 숙박 가능한 객실대여 (게스트 하우스) 온라인 간행물, 책자, 블로그 운영 인턴십, 자원봉사		
	서비스 공간				
	서비스 프로그램 및 기타	멤버십 & 파트너 공개 토론회 채용 룸 대여 행사	특강초대, 카달로그 발행, 동반 관람가능, 과학자들과 토론, 특별 행사 참여, 무료 티켓 제공 등 협동적이고 문화적 교환을 위한 공개토론을 제공 인턴, 학생, 직원 컨퍼런스, 세미나를 위한 장소대여 1년에 3회 전 세계의 민족학적인 상품을 판매		
멕시코	서비스 공간				
	서비스 프로그램 및 기타	사회공헌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세미나 및 행사 공간 문화 담당	매년 100명의 다양한 학위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박물관에 관련된 새로운 프로그램 제안 박물관에 대한 안내 및 소개 박물관과 관련된 세미나 및 행사 진행 행사 관련 서비스 담당, 행사 안내 및 홍보		
	서비스 공간				
	서비스 프로그램 및 기타	장소대여 자원봉사자 채용 유료 회원제 (기부)	개인이나, 회사에서 박물관 운영시간 이 외 대여 가이드, 가족이벤트 활동, 연구에 관한 자원봉사자 뮤지엄숍 할인,뉴스레터,새로운 멤버의 정보지, 강의,영화상영,비하인드 스토리 감상,특별전 감상		
영국	서비스 공간				
	서비스 프로그램 및 기타	정기 간행물 단체 프로그램 (시민 참여) 관외 프로그램 회원제	월간민박, 관련 간행물, e-news, 특별전 해설서, 기획전 해설서(가이드 북), 가이드 북 시민참여(자원봉사 그룹) 단체 자발적인 기획 및 운영, 지구이야기 마을 단체 시민대학, 이동 박물관, 순회 세미나, HEP FIVE 학원, 민박위성 정회원, 가족회원, 유지회원 박물관 혜택을 받음		
	서비스 공간				
	서비스 프로그램 및 기타	멤버십 & 파트너 공개 토론회 채용 룸 대여 행사	특강초대, 카달로그 발행, 동반 관람가능, 과학자들과 토론, 특별 행사 참여, 무료 티켓 제공 등 협동적이고 문화적 교환을 위한 공개토론을 제공 인턴, 학생, 직원 컨퍼런스, 세미나를 위한 장소대여 1년에 3회 전 세계의 민족학적인 상품을 판매		

3.2. 독일 국립민족학박물관

1842년에 도시 도서관이 소유하고 있던 작은 민족학 컬렉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박물관의 컬렉션은 60만개의 사진, 문서, 유물은 아프리카, 미국,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의 것을 가지고 있다. 이 전시품들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주고 방문자들에게 세계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한다. 이 박물관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다양한 정보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으며 다양한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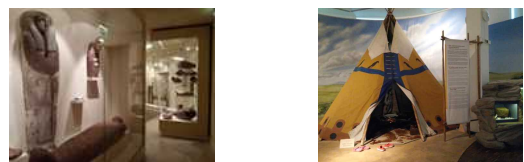
들에 의한 문화를 반영하고 여러 인종들 사이에 편견과 적대감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표 6> 조사대상 국립민족학박물관의 지역연계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 내용	내용	
네덜란드	버스	박물관에서 55마일 내에 위치한 학교들은 박물관까지 버스 대절을 할인하여 제공 한다.
	수장고	수장고는 다른 도시 'S-gravenzande'에 위치시켜 관리하고 있다.
	수장품 대여	타 박물관과 기관에 박물관이 소유한 수장품(2000,000개)을 대여해 주고 있다.
독일	청소년 학교	박물관과 레이던 대학과 협력하여 8세~12세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박물관의 컬렉션에 관한 전문가들이 강의를 진행하며, 전문가들의 강연을 듣고 질문도 할 수 있다.
	요리 프로그램	박물관 요리 강의
영국	결혼식장대관	박물관에 예약하여 결혼식장을 대관 할 수 있다.
	장소대여	박물관내에 장소를 마련하여 학술대회, 세미나 등을 위한 공간을 대여하고 있다.
멕시코	사회 서비스	각종 학회나 대학에 있는 학생들에게 박물관의 고고학적, 인류학적인 유산을 연구하며, 홍보 프로그램 제공
	축제개최	멕시코의 명절 때마다 매회 주변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개최
일본	영상을 제작 및 교육	지방자치단체와 영화계 종사자 및 주변학교 학생들과 협력하여 영상을 제작 및 제작법 교육
	지역방문서비스	지역단체나 성인을 위하여 박물관에서 몇몇 전시품과 체험활동을 준비하여 직접 방문
일본	커뮤니티 아웃리치 서비스	다른 기관 및 집단, 특수한 청중 또는 일반 대중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
	이동 박물관	일본의 지역을 이동하며 전시하여 박물관의 활성화 및 홍보에 힘쓰고 있다.
	순회 세미나	일본의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세미나(워크숍, 강의 등)를 개최하여 지역에 이바지한다.
파트너쉽	학교와 박물관이 서로 협력하여 파트너를 맺고 교육활동 진행한다.	

(1) 전시프로그램

독일 함부르크 민족학박물관의 전시프로그램은 대륙별로 나뉘어 전시되어 있다. 대륙별 비교문화와 문명별 비교전시를 통해 세계여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독일 국립민족학박물관은 주로 생업, 생활양식, 권력관계, 표현문화, 종교와 세계관, 언어, 민족과 종족성에 관련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마오리족' 전시실은 마오리족의 'Rauru' 집을 실제 크기로 재현하여 생활양식 콘텐츠를 특화시켰다.<표 3>참조



<그림 2> 독일 국립민족학박물관 전시프로그램

(2) 교육프로그램

독일 함부르크 민족학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주제별로 나뉘어 박물관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이드투어가 각 전시실별로 구성되어있다. 박물관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어린이 위주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며 주로 결혼문화, 음식문화, 주거문화, 음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표 4>참조

(3) 운영프로그램

독일 함부르크 민족학박물관은 레스토랑, 카페, 도서관, 뮤지엄숍을 서비스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년에 3회 전 세계의 민족학적인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박물관

홍보에 적극 힘쓰고 있다. 또한 공개 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컨퍼런스 및 세미나를 위한 장소를 대여하고 있다.<표 5>참조

(4) 지역연계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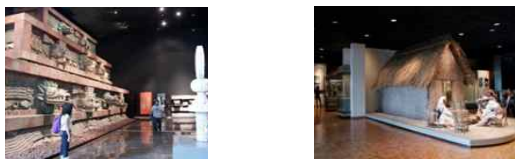
독일 함부르크 민족학박물관의 지역연계프로그램은 지역 사람들을 위하여 박물관내에 결혼식 및 행사, 학회, 세미나, 회의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요리프로그램을 통해 박물관에서 세계의 다양한 요리를 직접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표 6>참조

3.3. 멕시코 국립인류학박물관

1964년 9월 17일 신축박물관을 개관했다. 원주민들과 메스티소와 백인들로 이루어진 복잡다단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다. 멕시코인들을 통합하고 자신의 문화와 유산에 긍지감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 이 박물관은 멕시코의 현재와 과거 원주민 문명의 증거물을 아름답게 전시하고 문화의 의미와 내용을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교육적인 전시를 하며 과거의 원주민 문명이 현대 멕시코인의 뿌리임을 보여줌으로써 역사의식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전시프로그램

멕시코 국립인류학박물관의 전시프로그램은 고고학과 민족지학으로 나뉘어 전시되어 있다. 타 박물관은 다르게 멕시코에 존재했던 종족, 즉 자국의 조상들을 중심으로 전시를 구성하였다. 자문화 중심주의적 성향이 강하며 멕시코 국립인류학박물관은 주로 생업, 생활양식, 권력관계, 문화와 경제, 개발과 문화, 사회집단과 사회계층, 표현문화, 종교와 세계관, 정치체제와 법체제, 언어, 민족과 종족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2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있다.<표 3>참조



<그림 3> 멕시코 국립인류학박물관 전시프로그램

(2) 교육프로그램

멕시코 국립인류학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은 아이들을 위한 여름방학 특별 워크숍을 진행하며 초·중등학교 그룹을 위한 학교워크숍, 박물관 디플로마 과정이 있다. 주로 학술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이드 투어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수준별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표 4>참조

(3) 운영프로그램

멕시코 국립인류학박물관은 'INAH'라는 국가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하여 박물관의 새로운 서비스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세미나 및 문화담당 부서를 통해 박물관 홍보에 힘쓰고 있다. 2만 5천권의

장서를 소장한 도서관, 연구실, 극장, 강당, 레스토랑, 카페 등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다.<표 5>참조

(4) 지역연계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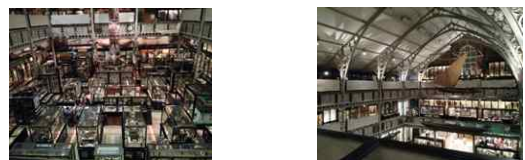
멕시코 국립인류학박물관의 지역연계프로그램은 매달 각종 축제 및 행사를 개최하며 멕시코의 명절 때마다 주변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각종 학회나 대학생들에게 박물관의 유산을 연구 및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표 6>참조

3.4. 영국 핏리버스박물관

1882년 인류학과 민족학 수집가인 Pitt Rivers가 기부한 컬렉션을 바탕으로 박물관이 개관되었다. 대부분의 민족학박물관에서는 지역적이나 문화적인 공통성으로 전시를 진열했으나 이곳은 예외적으로 각기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비슷한 도구를 사용하여 문제해결에 나선 것에 초점을 두고 유물의 목적에 의해 전시를 구성하였다. 악기, 무기, 직물, 탈, 장식품과 도구들이 지역, 문화, 시기와 상관없이 목적과 쓰임새에 따라 분류되었다.

(1) 전시프로그램

핏리버스박물관은 수장전시¹⁷⁾의 특성상 실 구분이 없으며 각각의 쇼케이스 별로 같은 목적(쓰임새)의 유물끼리 구성되어 있다. 영국 핏리버스박물관은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그 외 미지세계에 관한 유물을 전시실의 구분이 없이 층별로 전시구성이 나뉘며 주로 생업, 생활양식, 권력관계, 문화와 경제 개발과 문화, 의료와 문화, 표현문화, 언어에 관련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표 3>참조



<그림 4> 영국 핏리버스박물관 전시프로그램

(2) 교육프로그램

핏리버스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은 초등과정, 중등과정, 가족, 일반인과정으로 나뉘며 악기를 다루는 등의 음악 위주의 체험프로그램이 주를 이룬다. 초등학교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활동이 체험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가족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주말에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표 4>참조

(3) 운영프로그램

핏리버스박물관은 박물관 운영시간 이 외에 개인이나 회사에 박물관을 대여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관람

17) 전시와 수장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전시유형으로, 수납과 동시에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로 별도의 수장고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소장 자료 전체가 수장전시의 타입으로 구성되고 있다. 박다영, 임채진, 정명원, 현대미술의 성격 변화에 따른 수장영역의 변화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제13호, 2005, p.124

객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공간인 도서관과 뮤지엄숍을 운영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레스토랑이나 카페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표 5>참조

(4) 지역연계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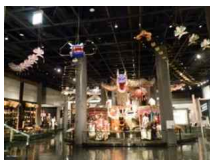
핏리버스박물관의 지역연계프로그램은 다른 기관 및 집단, 특수한 청중 또는 일반 대중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정보를 전달하고, 교육하는 커뮤니티 아웃리치 서비스가 있으며 영상물 제작 및 교육, 지역방문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표 6>참조

3.5.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

1974년 일본 대학들의 공동 연구기관의 하나로서 창립되었다. 이 박물관은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박물관으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구기관으로서 인류학과 민족학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민족학과 관련된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민족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공개와 더불어 공동연구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 여러 민족의 사회와 문화에 관련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여러 민족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깊게 할 목적으로 설립하였다.¹⁸⁾

(1) 전시프로그램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의 전시프로그램은 대륙별로 나뉘어 전시되어 있다. 세계 일주를 하듯 동쪽 오세아니아를 시작으로 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를 거쳐 일본에 도착하는 동선이며 일본의 문화를 세계 각지의 문화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문화우월주의적성향이 강하며 주로 생업, 생활양식, 개발과 문화, 표현문화, 종교와 세계관, 민족과 종족성에 관련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음악’과 ‘언어’에 관한 전시실이 특화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인터뷰 결과, 해당 박물관의 상설전시는 각 지역 사람들의 문화를 깊이 있게 연구 하는 지역전시와 음악, 기술, 언어, 사회 조직 등의 테마로 각 문화를 횡단 적으로 연구 하는 통 문화전시로 나뉘는데 ‘음악’과 ‘언어’ 전시실이 통 문화전시에 해당된다.<표 3>참조



<그림 5>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 전시프로그램

(2) 교육프로그램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은 초·중·고 학교프로그램, 일반인대상 프로그램, 어린이대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단체의 이용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단

18) 최중호, 국립민족학박물관 설립을 위하여, 한국박물관학회, 박물관학보 제4호, 2001, p.132

체를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학술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인의 편의를 위해 주말프로그램이 형성되어 있다.<표 4>참조

(3) 운영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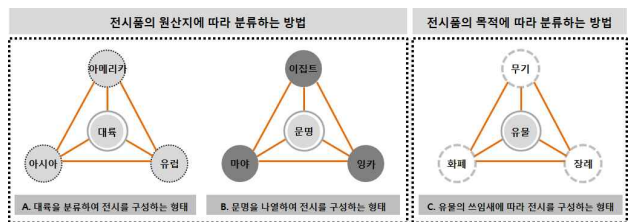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은 시민참여프로그램 및 관외 서비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간행물 발간, 회원제를 통해 홍보에 힘쓰고 있다. 서비스공간은 레스토랑, 도서관, 뮤지엄 스푼이 있다.<표 5>참조

(4) 지역연계프로그램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은 학교와 박물관이 연계하여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일본 지역을 이동하며 전시하는 ‘이동박물관’ 및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역에 이바지 하고 있다.<표 6>참조

3.6. 소결

Anthony Alan Shelton(2006)에 의하면 민족학박물관의 전시유형은 크게 원산지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과 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으로 분류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 5개관을 분석해 본 결과 <그림 6>과 같이 전시유형을 세부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 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원산지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는 아래 그림과 같이 A유형과 B유형이 있다. A유형의 경우 대륙별로 민족을 분류하여 구성하는 방식이고 B유형의 경우 문명을 나열하여 전시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인 C유형의 경우 유물의 종류나 쓰임새가 같은 것끼리 분류하는 방식이다. 5개관의 전시유형을 보면 A유형의 경우 네덜란드, 독일, 일본이 해당되며 B유형은 멕시코, C유형은 영국에 해당된다. 부분적으로 독일의 박물관이 B유형의 성격을 가진 전시실이 있고 네덜란드와 일본은 C유형의 성격을 가진 전시실이 있으나 전반적인 전시유형은 아니며 부분적으로 특화된 전시실이다.



<그림 6> 전시유형 분석 종합

또한 <표 7>과 같이 조사대상 민족학박물관의 전시 콘텐츠를 종합 분석하면 네덜란드 국립민족학박물관은 생업, 생활양식, 권력관계, 개발과 문화, 표현문화, 종교와 세계관에 관련된 전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한 점은 일본, 중국, 한국 세 전시실에서만 언어에 관해 다루고 ‘부처 홀’의 경우 종교와 세계관에 초점을 두고 전시를 구성하였다.¹⁹⁾ 독일 국립민족학박물관은 주로 생업, 생활양

식, 권력관계, 표현문화, 종교와 세계관, 언어, 민족과 종족성에 관련된 전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한 점은 전시실 '마오리족의 rauru집'의 경우 마오리족의 주거형태를 재현해 놓음으로써 다른 전시관의 지역별 전시와는 다른 형태로 생활양식에만 초점을 두고 전시를 구성하였다. 멕시코 국립인류학박물관은 주로 생업, 생활양식, 권력관계, 문화와 경제, 개발과 문화, 사회집단과 사회계층, 표현문화, 종교와 세계관, 정치체제와 법체제, 언어, 민족과 종족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 핏리버스박물관은 층별로 전시구성이 나뉘며 주로 생업, 생활양식, 권력관계, 문화와 경제 개발과 문화, 의료와 문화, 표현문화, 언어에 관련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은 주로 생업, 생활양식, 개발과 문화, 표현문화, 종교와 세계관, 민족과 종족성에 관련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악'과 '언어'에 관한 전시실이 특화되어 있다.

<표 7> 민족학박물관 전시 콘텐츠 분석 종합

분류	전시 콘텐츠	특화 콘텐츠
네덜란드	생업, 생활양식, 권력관계, 개발과 문화, 표현문화, 종교와 세계관	언어, 종교와 세계관
독일	생업, 생활양식, 권력관계, 표현문화, 종교와 세계관, 언어, 민족과 종족성	생활양식
멕시코	생업, 생활양식, 권력관계, 문화와 경제, 개발과 문화, 사회집단과 사회계층, 표현문화, 종교와 세계관, 정치체제와 법체제, 언어, 민족과 종족성	-
영국	생업, 생활양식, 권력관계, 문화와 경제 개발과 문화, 의료와 문화, 표현문화, 언어	-
일본	생업, 생활양식, 개발과 문화, 표현문화, 종교와 세계관, 민족과 종족성	표현문화, 언어
공통 콘텐츠	1. 생업, 생활양식, 표현문화 2. 종교와 세계관, 권력관계, 표현문화, 개발과 문화 3. 언어, 민족과 종족성 4. 문화와 경제	종교와 세계관, 생활양식 제안

5개관을 분석해본 결과, 전시유형은 주로 대륙별로 구성하는 방식의 유형이었고, 전시를 구성하는 방식으로는 세계여행을 하는 방식의 컨셉과 과거에서 현재로 나아가는 시대순의 방식이다. 또한 대부분의 민족학박물관이 자민족에 대한 전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비교전시를 하고 있다. 세계 여러 민족의 비교전시를 통해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 전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예외적으로 네덜란드는 비 서양세계에 대한 풍요로움을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민족에 관한 전시실을 따로 구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네덜란드와 다른 민족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전시를 구성하여 자민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2세부터 성인까지 관람객의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프로그램은 타 박물관 및 기관과 연계하거나 장소대여 및 서비스공간을 두어 박물관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연계프로그램은 대부분 집단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으며 <표 8>와 같다.

<표 8> 민족학박물관의 전시·교육·운영·지역연계프로그램 분석 종합

	전시 유형	전시 구성	자민족	비교 전시	교육프로그램 유형	교육 구성	교육 대상	운영 시설	운영 프로그램	지역연계 프로그램
네덜란드	A	세계여행	X	○	댄스, 연주, 음악, 가이드투어, 학교프로그램, 방학프로그램	초등, 중등, 일반인, 대가족, 단체	2세~성인	레스토랑, 카페, 뮤지엄숍, 도서관	룸대어, 객실대어, 수장품대어, 정기 간행물, 채움	버스대절, 수장고 연계, 수장품대어
독일	A	세계여행	○	○	결혼문화, 음식문화, 주거문화, 음악, 가이드투어, 워크숍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3세~성인	레스토랑, 카페, 뮤지엄숍, 도서관	멤버십, 파트너, 공개토론회, 채움, 룸대어, 행사	요리 프로그램, 결혼식장대관, 장소대어
멕시코	B	시대순	○	○	가이드투어, 학술이벤트, 학교프로그램, 여름프로그램	유아, 초등, 중등, 고등, 일반인	6세~성인	레스토랑, 뮤지엄숍, 도서관	사회공헌 프로그램, 세미나, 행사	사회 서비스, 축제개최
영국	C	시대순	○	○	음악, 행사, 강연, 가이드, 체험	초등, 중등, 가족, 일반인	초등~성인	뮤지엄숍, 도서관	장소대어, 채움, 회원제	영상물 제작 및 교육, 지역방문 서비스
일본	A	세계여행	○	○	워크시트, 퀴즈, 견학, 파트너쉽, 연주, 워크숍, 공연, 세미나, 학술강연회	어린이, 초등, 중등, 고등, 일반인	어린이~성인	레스토랑, 카페, 뮤지엄숍, 도서관	정기간행물, 시민 참여 프로그램, 관의 프로그램, 회원제	이동박물관, 순회 세미나, 파트너쉽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오늘날 다문화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소수 민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국 문화에 대한 성찰 및 학습효과를 제공하는 교육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할 우리나라의 민족학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네덜란드, 독일, 영국, 멕시코, 영국, 일본의 5개국 국립민족학박물관을 직접 현지방문 하였으며 박물관의 전시, 교육, 운영, 지역연계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일련의 조사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을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시프로그램을 분석해본 결과 A유형으로 분석된 네덜란드, 독일, 일본의 전시는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와 같이 대륙별로 비교 전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민족학박물관의 경우에도 A유형을 바탕으로 대륙별로 비교전시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개관의 전시 콘텐츠를 종합해본 결과, 생업, 생활양식, 표현문화에 관한 콘텐츠가 5개관 모두에서 나타났고, 종교와 세계관, 권력관계, 표현문화, 개발과 문화 콘텐츠는 4개관에서 나타났다. 언어, 민족과 종족성 콘텐츠는 3개관에서 나타났으며 문화와 경제 콘텐츠는 2개관에서 나타났다. 전시 콘텐츠 구성에 있어서 이러한 자료가 활용되길 기대하며 이렇게 구성된 전시 콘텐츠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비교 전시가 구성되어야 한다. 3장의 소결에 따르면 세계 여러 민족의 비교전시를

19) 네덜란드 국립민족학박물관의 전시 및 교육 담당부서 장(Anne Marie Woerlee)이 답하여 주었다.

통해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 전시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족학박물관 전시를 구성 할 때에 생업, 생활양식, 표현문화, 종교와 세계관, 권력관계, 표현문화, 개발과 문화 전시 콘텐츠는 필수적이며, 그 밖에 언어, 민족과 종족성, 문화와 경제와 관련한 전시 콘텐츠를 고려 해 볼 필요가 있다. B유형으로 대표되는 문명에 따른 구성은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5대양 6대주의 세계를 여행하는 컨셉으로 구성하는 것이 보다 흥미로울 것이다. 이(異) 문화를 거울로 해서 자문화를 재발견하는 것이 민족학박물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때 네덜란드를 제외한 독일, 멕시코, 영국, 일본 모두 자민족에 관한 전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민족학박물관 건립 시에는 이러한 자민족 전시를 포함한 전시프로그램 구성이 필수적일 것이다. 더 나아가 미래에는 우리나라 문화가 자연스럽게 여러 다른 나라에 유입 정착하게 되고 다른 문화들과 접촉하여 문화접변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을 제안한다. 한민족은 세계 각 지역 특히 중국·구소련·일본·미국 등지에 산재하여 있기에 한민족문화는 불가피하게 그 지역 문화 내지 민족문화의 하부문화로서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그 지역 속에서 그 지역문화의 직접·간접적 영향을 받으면서 문화변동을 겪어온다. 때문에 이들 지역의 한민족문화는 전체 한민족문화와 해당 지역문화가 만나 겹치는 부분에 위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외 한민족문화의 연구는 그 자체의 연구와 함께 그 지역문화의 총체적 연구를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²⁰⁾ 또한 3장에서 언급 된 바와 같이 네덜란드의 ‘부처 홀’전시실, 독일의 ‘마오리족의 rauru집’전시실, 일본의 ‘음악’과 ‘언어’전시실과 같이 우리나라 민족학박물관에서도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 전시품의 목적에 따라 특화 된 전시실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다양한 종교, 전통의상, 주거양식에 관한 전시가 필요할 것이다. 즉, 종교와 세계관, 생활양식에 대한 전시 콘텐츠를 제안 하는 바이다.

둘째,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5개관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댄스, 음악, 등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체험위주의 학습을 통해 다른 민족의 문화를 이해하기 수월해야 하며 교육프로그램은 연령이나 수준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프로그램 및 여름방학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학생 단체 및 일반인 단체는 가이드투어, 워크숍, 축제 및 행사, 성인은 강연, 세미나, 학술강연회, 워크숍, 연수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운영프로그램의 경우 민족학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레스토랑, 카페, 뮤지엄 샵 등의 서비스공간은 필수적이다. 또한 장소대여 및 정기간행물, 채용 및 행사개최, 숙박이 외에 재정적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멤버십, 파트너 및

회원제 운영 등 서비스프로그램을 통하여 박물관의 활성화를 꾀하여야 한다. 이러한 민족학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에 관한 전문연구원 및 교수 등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연계프로그램은 공동된 프로그램은 없었으나, 그 나라의 특징이나 지역의 특징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지역의 홍보 및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 지역연계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및 지역민의 문화 욕구 충족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대효과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연계된 집단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또한 적극적인 박물관 홍보활동, 담당 인력의 전문성 및 다양한 분야의 박물관전문직 종사자들이 양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5개국의 해외민족학박물관은 그 나라의 민족학적 특성, 역사와 유물, 지역연계에 따른 독자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그 내용을 그대로 한국 사례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향후 이러한 부분을 객관화 시킬 수 있는 연구로 확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해외 국립민족학박물관의 전시, 교육, 운영, 지역연계프로그램의 현황은 앞으로 우리나라 민족학박물관 건립 시에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국립민속박물관, 세계민족학박물관장 초청 국제심포지엄, 2010
2.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족학박물관 전시콘텐츠 연구, 2010
3. 백령, 멀티미디어시대의 박물관 교육, 애경, 2005
4. 전경수, 인류학과의 만남,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5. Anthony Alan Shelton, Museum and Anthropologies; Practices and Narratives, WILEY-BLACKWELL, 2006
6. Barbara Miller, Cultural Anthropology in a Globalizing World, Pearson Education, 2010
7. 엘런 바너드 지음, 김우영 옮김, 인류학의 역사와 이론, 한길사, 2003
8. 綾部恒雄, 桑山敬己 외 역음, 황달기 옮김. 알기 쉬운 문화인류학,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2
9. 김래영, 한국이민사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전시 및 운영프로그램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2008
10. 박진아, 국립민족학박물관의 프로그램 및 공간구성 분석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14
11. 이민아, 지역사회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활성화, 경희대 석사논문, 2012
12. 박다영·임채진·정명원, 현대미술의 성격 변화에 따른 수장영역의 변화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제13호, 2005
13. 최중호, 국립민족학박물관 설립을 위하여, 한국박물관학회, 박물관학보 제4호, 2001
14. 조홍윤. 韓國 民族學의 나아갈 길, 민족과 문화 제5호, 1993
15. Cambridge Dictionary Philosophy
16. <http://volkenkunde.nl/>
17. <http://www.voelkerkundemuseum.com/>
18. <http://www.mna.inah.gob.mx/>
19. <http://www.prm.ox.ac.uk/>
20. <http://www.minpaku.ac.jp/>

[논문접수 : 2014 07. 29]
 [1차 심사 : 2014. 08. 29]
 [2차 심사 : 2014. 09. 02]
 [3차 심사 : 2014. 09. 12]
 [게재확정 : 2014. 10. 10]

20) 조홍윤. 韓國 民族學의 나아갈 길, 민족과 문화 제5호, 1993, p.9